

U대회 경기장시설 부적정 계약 수두룩

광주시 감사위 감사결과 6건 적발 9명 징계 조치

전일빌딩 리모델링 뒤통 돈 공무원 2명 중징계 요구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 특정 감사 결과 계약 대상자 부적정한 선정 등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계약자 선정 특혜의혹과 경기시설 사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실,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진행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9명 징계(경징계) 요구, 11명 훈계 등 20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조치로 주의와 시정 각 4건과 2건, 3200여만원을 감액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이 감사내

용에 불복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감사결과에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보라매공원 등 3곳에 설치한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구매와 관련해 입찰공고서 납품규격과 다른 인조잔디 제품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월드컵경기장 노출콘크리트 보수공법 선정 과정에서 건축물의 원(源) 질감 유지가 가능한 공법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체육회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제시된 공법만 적용해 공사를 추진하다 건축물 훼손 논란 등이 제기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 대한공법을 적용해 준공했다고 밝혔다.

보수공법 검토과정에서 내부 의견 미조율로 상·하급자간 갈등을 조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창호구매 계약 과정에서도 사업부서가 창호공사를 위해 단열 커튼월(150mm, 180mm, 창호두께 3mm) 제품으로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계약부서는 해당제품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창호두께 2mm 제품이 납품됐고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철재로 보강한 뒤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창호두께 변경에 따른 비용 1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추후 체육관 안전에 이상없는 지 구조물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광주여대 다목적체육관 부설지하주차장 조성 과정에서도 학교측과 사업비 분담

을 하면서 사전 검토가 미흡했으며, 시급성을 이유로 시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남부대 국제수영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비 지출 부적정, 체육관과 수영장 등의 위수탁 협약 과정에서 시의회 미동의와 공중서 미작성 등도 지적됐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뒤통을 받아 청진협의로 시정 공무원 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일빌딩 리모델링 용역을 수주한 B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4급 서기관 C모씨와 6급 J씨(사무관 승진 대상자) 등 2명에 대해 시 인사위원회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개소식

27일 광주 동구 대원빌딩에서 열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양항 물류서비스 부산항의 10% 수준

정인화 의원 국감자료 ... 운송·하역·창고보관 등 매우 취약

광양항(여수항 포함) 배후단지 물류서비스가 경쟁항인 부산(부산신항 포함)과 인천항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광양항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운송과 하역, 창고보관 등 광양항의 전체적인 항만 물류서비스는 부산항과 비교했을 때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운송 부문의 경우 부산항에는 8410업체에 종사자 2만3822명이, 인천항에는 1만344업체에 1만552명이 각각 있으나 광양항에는 978업체에 4574명의 종사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생산지에서 항만까지 또는 항만에서 소비자까지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광양항은 부산항의 11.6%, 인천항의 9.6%에 불과, 신속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역 부문에서도 부산항에는 254업체에 종사자 5541명이, 인천항에는 38업체에 2129명이 각각 있으나 광양항에는 28업체에 1544명의 종사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항의 항공과 육상화물 취급 업체 수는 10개로 부산항(197개)의 5%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창고보관 부문에서도 부산항은 264개 업체에 종사자 2565명, 인천항은 238개 업체에 3527명이 각각 있으나 광양항

은 28개 업체에 323명의 종사자만 있었다.

특히 냉동냉장창고업체는 부산항에 63개, 인천항에 17개가 각각 있었으나 광양항에는 단 1개만 있었다. 일반창고의 경우도 광양항은 16개로 부산항 136개의 11.7%, 인천항 151개의 10.6% 수준에 불과한 상태였다. 상품 포장 부문에서도 부산항은 97개 업체에 1982명, 인천항은 57개 업체에 469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광양항에는 29개에 업체에 494명의 종사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처럼 물류서비스 업체 수가 적으니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광양항 활성화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대선후보 힐러리-트럼프 TV토론

경제부터 핵 비확산까지 ‘불꽃’ 설전

힐러리 ‘포용·미래’ 對 트럼프 ‘강한 리더십’

첫 미국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로 대표되는 경제정책부터 핵무기 비확산을 비롯한 안보사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쌓은 입장과 정책을 바탕으로 불꽃튀는 설전을 벌였다.

클린턴이 주로 포용이나 미래의 모습에 대해 화제를 집중하려 한 반면, 트럼프는 강한 지도자로서의 인상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주 햄프스테드에서 열린 1차 토론이 시작하자마자 두 후보는 일자리 문제가 주제로 제기되자마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각자의 논리를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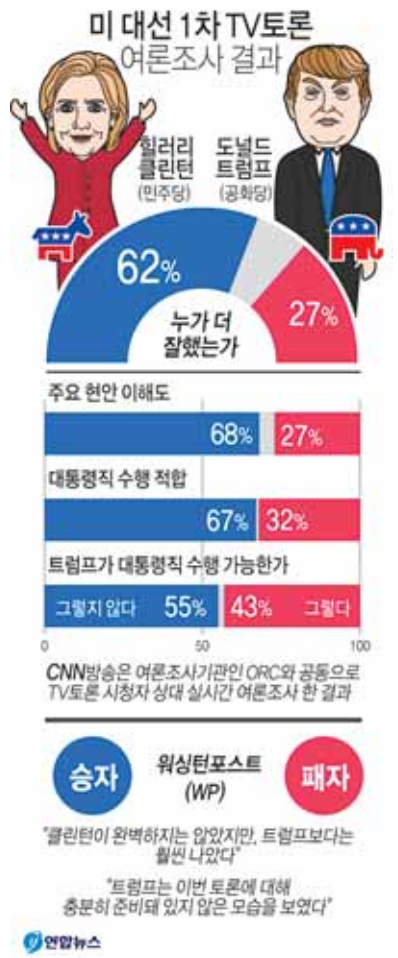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경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남녀 균등임금 등을 클린턴이 주장한데 대해 트럼프는 무역협정 재협상을 통해 “도둑맞고 있는” 일자리를 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겨냥해 “나는 그 정책을 ‘조작된 낙수효과’(trumped-up trickle-down)라고 부를 것이다”며 “그것은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5조 달러(약 5500조 원) 정도의 돈을 우리나라(미국)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클린턴이 소득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자,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금융시장에 “크고 뚱뚱하며 못생긴 거품”을 만들었다고 맞서기도 했다.

납세기록의 비공개로 논란을 빚었던 트럼프는 “클린턴 장관이 삭제된 3만 3000 건의 이메일을 공개한다면, 내 변호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나는 내 납세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현재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트럼프는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을 언급하며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지만 동맹국들이 “적절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클린턴은 “우리의 가치가 갖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동맹관계라는 미국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NN·WP “1차 TV토론 승자는 힐러리”

힐러리 62%-트럼프 27%

미국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첫 대선 TV토론의 승자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꼽았다.

CNN방송은 여론조사기관인 ORC와의 공동으로 TV토론 시청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클린턴이 잘했다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잘했다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도 클린턴이 월등히 앞섰다. 주요 현안 이해도에서 클린턴은

68%를 받았지만, 트럼프는 27%를 얻는데 그쳤다. 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누가 더 적합한지는 질문에도 클린턴이 67%, 트럼프가 32%를 각각 얻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3%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55%에 달했다.

WP는 클린턴을 승자로, 트럼프를 패자로 평가했다. WP는 “클린턴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나았다”면서 “트럼프는 이번 토론에 대해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광주 남구 진월,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의 중심지

성황리 분양중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설계·감리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SH BUILDING

스케일이 다른 가치는 투자자의 특권이 됩니다!

남구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과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우월한 입지

삼면이 확터 최고의 조망권 및 노출광고가 확실한 상가

투자가치

고소득 직군의 인적 유입 및 소비증대로 수익증가

미래가치

어느 누구도, 앞으로 제시할 수 없는 위치대비 합리적 분양가

고객가치

효천H 천년나무APT LH행복주택

현장 SH BUILDING

효천 제일동경채APT 빚고울CC 노인건강타운 빚고울전남대병원

분선동 → 진월지구

↓ 화순 도곡

문의 062)676-4006

010-5681-4015

※ 본 이미지는 소비자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